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비판적 시청과 미디어교육적 함의*

-프로그램 구성 분석을 중심으로-

강내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구성상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청이라는 미디어교육적 의미를 찾는 데 있다. 미디어교육이란, 간단히 말해, 수용자들에게 미디어교육 지도자가 가르쳐 준 지식이나 정보, 비판적 시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수용자들이 마주치게 될 수많은 미디어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Masterman, 1980; 안정임·전경란, 1999 참조).

본 연구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청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탐사적(exploratory)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2000)의 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어 있는가? 또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는 어떠한 유형적 특성이 있으며, 패널의 구성에는 어떠한 특징이 발견되는가?

아래 내용에서는 먼저 연구를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토대가 되는 연구들을 크게 미디어교육,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적 특성 등의 주제를 가지고 논한 다음, 구체적인 연구질문 및 연구결과들을 제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갖는 미디어교육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 미디어교육 차원에서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청

1)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비판적 시청

미디어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연구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시각의 다양성으로 인해 개념적 정의나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등도 다양하다 (Alvarado & Boyd-Barrett, 1992; Bazalgette, 1997; Brown, 1991, 1998; Buckingham, 1998; Christ & Potter, 1998; Kubey & Csikszentmihalyi, 1990; Lewis & Jhally, 1998; Masterman, 1980; Meyrowitz, 1998). 미디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① 해롭고도 강력한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보호주의적 혹은 접중주의적 접근방법(Leavis & Thompson, 1933; Halloran & Jones, 1968; Masterman, 1980), ②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텍스트 자체에 의미가 저장되어 있고, 수용자는 그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중매체가 그러한 텍스트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시킨다고 보는 텍스트중심주의

에 입각한 비판적 접근방법(Masterman, 1980, 1985; Lewis & Jhally, 1998), ③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수용자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용자가 지닌 사회문화적 경험과 맥락(context)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문화연구적 접근방법, ④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봄으로써 자신이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사회문화적 가정과 관습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성찰적(reflexive) 접근방법(Buckingham, 2000; Huguier, 1992; Zettl, 1998)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글의 전개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개념의 범위를 한정시켜 보자. 많은 미디어교육 관련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미디어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media literacy)”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hrist & Potter, 1998). 뿐만 아니라, 미디어체계나 수용자들이 결국은 한 사회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실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들 간의 상호기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디어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은 궁극적으로 수용자들이 사회체계 내에서 비판적이고도 이성적으로 기능하는—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힘을 가진 시민’(empowered citizen)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Buckingham, 1998; Lewis & Jhally, 1998 참조). 따라서 이 글에서 미디어교육을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미디어의 내용과 그 생산과정을 해독,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나아가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양성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정한다.

2)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

우리나라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방송사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르면 “시사·교양”이나 “토론·시사”, 그리고 언론학에서는 주로 “토크 프로그램(talk program)”의 하위 유목으로 분류되어 왔다. 토크 프로그램이라 하면, 크게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진지한 토론(debate 혹은 discussion) 프로그램과 오락적 기능을 추구하는 토크쇼(talk show)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토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진행방식이 논증이나 논쟁(argumentation)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언어 사용이 주가 되며, 토크쇼는 사교적인 대화나 비논리적, 비문법적인 일상대화체의 어휘나 언어 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이두원, 1996). 이러한 구분법을 따른다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토론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토크쇼와는 프로그램 구성이나 토론주제, 대화의 양식이 상이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당대의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¹⁾ 즉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들과 일반 공중들 모두가 관여된 공공의 문제(public issues)이며, 일방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쌍방향적으로 같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내용들이다. 달리 말하면, 방송사들은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하버마스(Habermas, 1989)가 말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公論場)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우리

1)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시사(時事)란 “그때그때 세상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이나 사건”을 뜻하며, 토론(討論)이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에게 정당함을 주장하며 논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 방송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초기화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MBC의 경우를 보면,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보다 과감하고 진솔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SBS는 “상대의 의견을 듣는데 인색한 우리 사회의 토론 부재현상을 극복하고 유연한 대화의 장을 지향”한다고 공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취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반 공중이 이전에는 정보를 받기만 하던 수용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참여자 혹은 “시민시청자”(Comer, 1991)로 인식되어 가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엘리트들과 시민시청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반드시 토론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하는가?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담화(rational critical discourse)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이란 당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다원적인 고민을 요청하는 게 그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통한 시청자의 이해와 고민의 활성화에는 토론의 진행자나 참석패널들의 대화 내용의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들의 대화 형식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월튼(Walton, 1989)은 토론 프로그램의 대화유형을 말다툼, 토의, 비판적 토론, 질문, 협상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말다툼’은 인신공격 등의 감정적 표현이 주된 특성이며, ‘토의’는 미리 정해진 진행절차에 따라 논쟁을 위해 양측이 구성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비판적 토론’은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성적인 논쟁을 하는 경우이며, ‘질문’은 공인들의 의무를 묻거나 비난과 불평을 하는 경우이고, ‘협상’은 대립되는 논쟁을 통해 이상적인 해결책에 근접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경우에 해당되는 대화유형들이다(김응숙, 1999 참조).

종합하면,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지향점은 협상을 위한 비판적 토론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다양한 입장들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같이 고민하게 만드는 “문화적 포럼(cultural forum)”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Newcomb & Hirsch, 1984). 시사적인 공적 토론과 논쟁을 위한 문화적 포럼을 통해 시청자들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은 설정하였다.

- 연구질문 1: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기본구성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주제 상의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3: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1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방영된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 MBC의 <MBC 100분 토론>, SBS의 <SBS 토론공방>의 총 61회분(각각 KBS 22회분, MBC 19회분, SBS 20회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방송사별 분석대상인 프로그램 횟수의 차이는 방송사별 편성에 있어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은 주(週)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들을 주로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연구질문 2를 통해 방송사들이 어떤 주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각 방송사들간에는 주제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연구질문 3을 통해서서는 프로그램 패널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방송사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방송 3사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과 주제

1) 기본 구성 비교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기본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임의로 각 프로그램의 1회분씩을 살펴보았다.²⁾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5개월 동안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편성이나 구성상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1회분 검토를 통해서 개괄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기본 구성은 진행자 한 사람과 다수로 이루어진 패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방청객의 의견과 함께 전화, 팩스나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방청객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시민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주제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일반 대중이나 단체들을 대표하는 효과를 지닌다.³⁾

2) 검토된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2001년 8월 4일에 방영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의 “주5일 근무제 남은 쟁점은?”, 8월 9일에 방영된 <MBC 100분토론>의 “기로에 선 한총련, 그리고 학생운동”, 8월 1일에 방영된 <SBS 토론공방>의 “전월 세 대란, 집값 급등: 내집마련 서둘러야 하나?”였다.

(1)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의 구성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은 길종섭 대기자의 진행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5분부터 보통 100~110분 정도 토론이 이루어진다. 스튜디오 구성은 진행자를 중심으로 패널이 위치하며, 방청객은 진행자와 패널의 맞은 편에 위치한다. 따라서 패널의 발언을 잡는 텔레비전 화면의 버스트 샷(bust shot)의 배경에는 방청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방청객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는 것이 타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이다.

토론의 기본 구성을 대략적인 소요시간 분량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진행자가 주제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함과 동시에 패널들로부터 원론적인 의견을 듣는다(15분). ② 그 후 3~4개의 주요 쟁점을 진행자가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나 논쟁이 이루어진다(85분). ③ 쟁점별 토론이 진행되는 중간에 시청자 의견을 전화로 연결하여 듣고, 필요할 경우 패널의 답변을 듣는다(3분). ④ 쟁점별 토론이 끝난 후에는 팩스로 들어 온 시청자의 의견을 3~4개 소개한다(2분). ⑤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30초).

(2) MBC의 <MBC 100분 토론>의 구성

MBC의 <MBC 100분 토론>은 유시민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맡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35분부터 프로그램 명칭이 암시하듯 100분 정도로 이루어진다. 스튜디오 구성에 있어서는 KBS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예를 들면, <MBC 100분토론>의 “기로에 선 한총련……”의 경우는 홍익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한총련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방청객으로, <SBS 토론공방>의 “전월세 대란……”에서는 서울시의 3개 구(區)의 조합장들이 방청객으로 출연하였다.

즉 진행자를 중심으로 패널이 위치하는 것은 같으나, 방청객들은 양쪽 패널의 뒤편에 위치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패널의 버스트 샷의 배경에 4~5명의 방청객 모습이 보이게 되어, 마치 이들이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MBC 100분 토론>의 토론 진행상의 특징은 자막으로 주요쟁점(3개 정도)을 제시하고 차례대로 토론해 나간다는 점이다. 토론의 기본 구성을 대략적인 소요시간 분량과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진행자가 주제에 대한 간단한 발제와 함께 참여해준 방청객을 소개하고, 주제와 관련된 준비화면을 제시한다(4분). ② 패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바로 첫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 토론을 벌인다(55분). ③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15분). ④ 방청객의 찬반 의견을 듣고, 패널의 답변과 간단한 반론의 기회를 준다(8분). ⑤ 마지막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10분). ⑥ 인터넷으로 들어 온 시청자의견을 2~3개 소개한다(1분). ⑦ 진행자가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1분).

(3) SBS의 <SBS 토론공방>의 구성

SBS의 <SBS 토론공방>은 엄광석 대기자의 진행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35분부터 약 80분 정도 진행된다. 스튜디오 구성이나 방청객의 위치, 토론의 기본구성 등은 MBC와 상당히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토론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진행자가 주제에 대한 간단한 발제와 함께 참석한 패널과 방청객을 소개하고, 시청자의 참여방식을 알려준다(2분). ② 주제와 관련된 준비화면을 제시한다(2분). ③ 패널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각자 의견을 개진한다 (10분). ④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35분). ⑤ 방청객의 찬반 의견을 듣고, 패널의 답변을 듣는다 (12분). ⑥ 이어 마지막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12분). ⑦ 마지막 쟁점

토론 도중에 시청자를 전화로 연결하여 의견을 듣고, 패널의 답변을 듣는다(8분). ⑧ 인터넷으로 들어 온 시청자의견을 2~3개 소개한다(1분). ⑨ 진행자가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30초).

여기서는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구성의 형식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성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기간에 해당되는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주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토론 패널의 구성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 및 주제유목별 비교

각 방송사들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개월 간 방영된 총 61회분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특정 시기에 방영된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할 경우, 그 시기에 국내·외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가 다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방송사별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별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방송의 토론주제가 된 것들이 주로 어떠한 것들이었는가에 대한 경향(trend)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먼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고, 주제유형별로 방송 3사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소아대 정국, 남북 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사회전반의 부패문제, 노사문화, 주 5일 근무제, 구조조정, 주가조작, 쌀 정책, 교육 경쟁력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MBC의 <MBC 100분 토론>은 이용호 게이트, 미국테러 사건의 추이, 정국안정, 학생운동, 사후 피임약, 한일관계, 남녀차별, 언론사 세무조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SBS의 <SBS 토론공방> 역시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 파행국회, 미국테러 사건, 경제정책, 주택 문제, 성범죄자 실명공개법, 언론사 세무조사 등의 토론이 있었다. 방송 3사의 토론주제는 당대의 주요 쟁점들을 공히 다루고 있었지만, 특이할 만한 주제가 눈에 띄었다. <생방송 심야토론>의 경우, 식수와 관련하여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라든가, <MBC 100분 토론>의 미술교사 누드사진 사건이나 한국 축구의 미래에 관한 토론, 그리고 <SBS 토론공방>의 소설가 이문열에 관한 “곡학아세(曲學阿世)” 논쟁이나 영화 <친구>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한 토론들은 다른 방송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주제들은 크게 국내 정치,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6개의 유목으로 나눌 수 있었다.⁴⁾ 정치 유목을 국내와 국제로 나눈 이유는, 분석기간에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과 미국의 대응과 관련된 주제나 남북한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논의와 관련된 주제는 국내정치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살펴보는 게 의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분석기간 동안의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6개 주제유목별 빈도와 상대빈도를 보면 아래 제시된 <표 1>과 같다.

4) 주제별로 분류함에 있어서, 특정 주제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는 그 주제가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가에 주목하여 분류를 하였다. 예를 들어, <MBC 100분 토론>의 “미술교사 누드사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크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 예술성과 관련된 문화담론, 교사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논란 등과 관련된 주제였다. 이 주제가 교육이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주제가 갖는 사회적 파장이 보다 근본적인 토론거리였다는 판단 하에 ‘사회’ 주제 유목에 포함시켰다.

〈표 1〉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 유목별 구성 (2001년 6~10월)

국내 정치	4	(18.2%)	3	(15.8%)	4	(20.0%)	11	(18.0%)
국제 정치	3	(13.6%)	7	(36.8%)	4	(20.0%)	14	(23.0%)
경제	9	(40.9%)	1	(5.3%)	4	(20.0%)	14	(23.0%)
사회	4	(18.2%)	7	(36.8%)	4	(20.0%)	15	(24.6%)
문화	0	(0%)	1	(5.3%)	3	(15.0%)	4	(6.6%)
교육	2	(9.1%)	0	(0%)	1	(5.0%)	3	(4.9%)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시사토론 프로그램에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련된 토론이 전체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거의 90%를 차지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볼 때, 문화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세 방송사 모두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다. 각 방송사 프로그램별로는 약간의 특성이 발견되는데, <생방송 심야토론>은 경제와 관련된 토론이 가장 많았으며 (40.9%), <100분 토론>의 경우는 사회문제(36.8%)와 특히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남북문제와 관련된 국제정치(36.8%)에 관한 토론이 다른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보다 많았고, 반면 경제관련 토론은 타 방송사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었다. <SBS 토론 공방>은 분석기간 동안 주제에 있어 다양하고, 상당히 고른 분포를 보였다.

위의 결과들은 각 방송사들이 어떤 유목의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방송 심야토론>의 제작진들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토론의 주제로 보고 있으며, <100분 토론>의 제작진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문제들이나 국제문제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 <생방송 심야토론>에는 타 방송사에 비해 문화

와 관련된 주제가 한 번도 없었으며, <MBC 100분 토론>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토론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시청자의 시각에서 볼 때, 물론 주 시청시간대의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이나 신문 읽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으나, 당대의 여러 시사문제들 중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아젠다; agenda)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하거나, 나아가 그 주제를 다른 사회적 현안보다도 더 중요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3)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참여자 구성 비교

각 방송사들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에 출연하여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의 구성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연진들을 사회적·직업적 특성에 따라 유목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집단유목을 구성하였고, 이 집단유목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참여자들은 “기타”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5개 집단유목은 행정부의 관리나 공무원들이 속하는 “행정부” 유목, 각 정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여한 정치인들인 “정당/정치” 유목, 자신들의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한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에 소속된 개인이나 시민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들이 속하는 “사회단체” 유목,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인 “교수” 유목, 그리고 교수집단 이외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연구소 위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이루어진 “전문가” 유목 등이다.

이상의 참여자 유목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의 빈도와 상대빈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토론자 유목별 구성 (2001년 6~10월)

행정부	14	(10.7%)	3	(3.4%)	10	(9.7%)	27	(8.4%)
정당/정치	14	(10.7%)	16	(18.0%)	16	(15.5%)	46	(14.2%)
사회단체	25	(19.1%)	15	(16.9%)	10	(9.7%)	50	(15.5%)
교수	45	(34.4%)	32	(36.0%)	36	(35.0%)	113	(35.0%)
전문가	29	(22.1%)	22	(24.7%)	27	(26.2%)	78	(24.1%)
기타	4	(3.1%)	1	(1.1%)	4	(3.9%)	9	(2.8%)

분석기간 동안에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는 총 323명이 패널로서 토론에 참석하였다. 각 프로그램별로 보면,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의 경우는 매회 평균 6.0명의 패널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BC의 <100분 토론>은 평균 4.7명, <SBS 토론 공방>은 평균 5.2명의 패널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 <생방송 심야토론>이 비교적 많은 인원을 패널로 토론에 참여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상당수는 교수나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다(59.1%). 이러한 경향은 각 방송사별로 보더라도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세 프로그램들이 거의 동일한 패널 구성 방식을 따른다는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즉 방송사에서는 우선 주제별로 해당되는 정책관계자나 관련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나머지 패널들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패널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교수나 전문가의 상대적 비율이 주제의 유형과 관계없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교수”나 “전문가” 유목 이외의 유목에 속한 사람들의 패널 참여의 정

도는 어떠한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방송시간에 서로 상이하므로,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패널의 구성 역시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국내 정치에 관한 토론일 경우 정당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고, 경제와 관련된 토론일 경우는 경제관련 부처의 공무원이나 교수나 전문가들이 주로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 프로그램별 “행정부”, “정당/정치”, “사회단체” 유목에 속하는 사람들의 패널구성 빈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의 경우, “사회단체” 유목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에 소속된 개인이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다른 두 토론프로그램에 비해 높다. 이는 <생방송 심야토론>에는 “행정부”나 “정당/정치” 유목에 속하는 사람들보다는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하는 집단임을 뜻한다. 반면, MBC의 <100분 토론>과 SBS의 <SBS 토론 공방>에는 “정당/정치” 유목에 속하는 입법부 소속 정치인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4.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청의 미디어교육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내용이 제작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거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나아가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수용자들을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시청자로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의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상의 특성들을 요약·정리하고, 미디어교육 차원에서의 의미를 찾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방송 3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형식상의 기본 구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프로그램 진행상 후반부에 예정된 쟁점 들일수록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시간 배정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는 주어진 편성시간 내에 토론을 이루어내야 하는 진행자의 진행미숙으로 볼 수도 있으며, 참석 패널들의 일방적인 의견 개진과 같은 변인들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들이 주로 논의되는 마지막 쟁점이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만일 방송사의 의도적 시간 배정이 아니라면, 앞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즉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해도 그 문제에 관한 인지적·행동적 관여의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로 행정당국이나 정책입안자, 교수, 전문가 등의 사회적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간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시간량에 비해, 시청자나 방청객들을 위한 시간배정이 짧으며 반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사들이 내세우는 “토론의 장”이나 “대화의 장”으로의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실천되지 못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가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그들이 논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야 비로소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미디어를 통한 시민시청자의 창출에 있는 것이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유형과 패널구성에 대한 분석은 비판적 시청차원의 평가를 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먼저, 주제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 결과는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시사토론 프로그

램들의 상당수가 정치, 사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시사적 가치가 있는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과 그에 대한 보복전쟁과 같은 이슈가 있어,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국제 정치”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방송사들을 포함한 언론들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교적 자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보도한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보도가 많았던 것처럼,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고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SBS 토론 공방>의 경우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을 벌였을 정도였다. 주제 자체의 국제적인 심각성이 방송사가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그와 더불어 풍부한 자료화면의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이나 ‘유익성’보다는 ‘흥미성’ 위주로 주제가 선정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⁵⁾ 둘째, 패널구성상의 특성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보면, 세 프로그램 모두 교수나 전문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이는 방송사의 패널을 구성하는 관행이 지나치게 이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교수나 전문가집단들이 아무래도 토론이나 토론문화에 다소 익숙한 집단이며, 아울러 비교적 손쉽게 섭외가 가능한 집단이라는 점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이나 참석자의 구성을 볼 때 아쉬운 점은, 앞서 논의했듯이,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이나 시청자가 하나의 토론자 유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5) 테러 사건보도 시점에 있어, 실제 SBS의 시청률은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세를 구가했다. 테러에 의한 WTC의 붕괴장면을 지속적으로 방영한다거나,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청각적으로 자극적인 효과를 많이 사용하여, 언론 본연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보도를 하는데는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언론학회 라운드 테이블, 2001).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은 매회 4~7명의 출연 패널 이외에 방청객의 의견을 듣거나 시청자들을 전화로 연결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의도의 효율성이나 효과는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방식과는 달리 시청자가 중요한 패널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 대중이 패널의 일부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든 것은 미디어 수용자들이 민주시청자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응숙, 「시청자 참여 토론 프로그램의 구조와 담론 전개방식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43-3, 1999.
- 안정임·전경란,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1999.
- 이두원, 「TV토크쇼 진행자의 언어적 스타일에 대한 연구: 토크쇼 진행언어의 표현(expression) 적 특성에 관한 고찰」, 『방송학 연구』 제6호, 1995.
- Alvarado, M. & Boyd-Barrett, O. (eds.), *Media Education: An Introduction*, London: BFI, 1992.
- Bazalgette, C., "An agenda for the second phase of media literacy development", in R. Kubey (eds.), *Media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Current Perspectives*, New Brunswick &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7.
- Brown, J. A., *Television Critical Viewing Skills Education: Major Media Literac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Countri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1.
- Buckingham, D., "Media education in the UK: Moving beyond protectionism",

-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1998.
- Buckingham, D., 「규제에서 교육으로」, 『중등 우리교육』 제4월호[인터뷰], 2000.
- Christ, W. G. & Potter, W. J., "Media literacy, media education, and the academy",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1998.
- Cornier, J., "Meaning, Genre, and Context: The Problematics of 'Public Knowledge' in the New Audience Studies",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Methuen, 1991.
-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homas Burger, Tra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9.
- Halloran, J., & Jones, M., *Learning about the Media: Communication and Society*, Paris: UNESCO, 1968.
- Huguiet, M., "Involving the media in media education", In C. Bazalgette, E. Bevort, & J. Savino (eds.), *New Directions in Media Education Worldwid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92.
- Kubey, R. & Csikszentmihalyi, M., *Television and the Quality of Life: How Viewing Shapes Everyday Experie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0.
- Leavis, F., & Thompson, D., *Culture and environment: The training of critical awareness*, London: Chatto & Windus, 1933.
- Lewis, J. & Jhally, S., "The struggle over media literacy",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1998.
- Masterman, L., *Teaching about Television*, London: Macmillan, 1980.
- Newcomb, H. M. & Hirsch, P. M., "Television as a Cultural Forum: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W. D. Rowland & B. Watkins (eds.), *Interpreting Television: Current Research Perspectives*, Beverley Hills, CA: Sage, 1984.
- Walton, D. N.,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Zettl, H., "Contextual media aesthetics as the basis for media literacy",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1998.

■ Abstract

Critical Viewing of Television Debate Programs and its
Implications on Media Education

Kang, Nae-won

The present study explored ways of critical viewing of the television debate programs on current public affairs by examining the three broadcast debate programs-Late Night Debate(Sim-ya-to-ron), 100 Minute Debate(100-boon-to-ron), and Offense/Defense Debate(To-ron-gong-bang)- aired respectively by KBS, MBC, and SBS. The critical viewing of the television debate programs was exclusively approached in respect of media education which was understood in the present study as the practice to enhance the audience's ability to decode, evaluate, and analyze the media contents and their production processes, as well as to cultivate media users with civic and democratic skills.

Thre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sked: firstly, what were the basic program formation or structure of each broadcast debate program? Secondly,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in topics or subjects of each debate program? Thirdly, how did the debate panels consist of in the three debate programs? To answer these questions, a total of 61 program units from Late Night Debate, 100 Minute Debate, and Offense/Defense Debate aired from June to October 2001 were secured from the web sites of KBS, MBC, and SBS.

The basic program structures of each debate program were found analogous to each other with minor variations. Each program was started with facilitators' opening comments introducing the specific debate topics and appealing to the

audience's interests. Then, with or without showing a brief edited material, most proportion of the whole program time of 80-120 minutes was allocated for debates and argumentations across each panel comprising 4 to 7 people for whom facilitators presented main controversial issues. In the midst of the debate, facilitators asked several spectators in their studios and introduced a couple of viewers who wanted to show their opinions on the phone.

Topics covered in the debate programs were diverse current public affairs and issues from the social impact of the film *Friend* (Chin-goo) to the North-South issue. Specifically, the topics were identified into six categories such as issu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Table 1 showed dominant proportion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Presumably, debate program viewers could become knowledgeable on the issues which the debate programs dealt with and conceive those issues as salient national agendas.

For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debate panels, five categories of groups were produced according to panels' soci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groups from the administration, political parties, social organizations (interest groups, civil organizations, etc.), professors, and experts. The finding showed that approximately 60% of the whole panels of the three debate programs were professors and experts (see Table 2), implicating that the three debate programs composed panel members with similar occupational backgrounds and professors and experts were easy to persuade to participate in panels.

The findings beared several implications in terms of critical viewing, one of media education objectives, of broadcast debate programs. First, related to program structures, the finding that the time allocation and participation format for spectators and viewers were very much limited compared to those for panel members made it doubtful whether each debate program, as the broadcasting companies emphasized, functioned as a public sphere or a sphere for debate or communication in order to have their viewers vigorously participate in broadcast

debates. Accordingly, judging from the analysis of panel composition, spectators and viewers were not regarded as a important constituent of the panel who were much engaged in topics. To have some of the general public be involved as panel members in debates potentially indicates to make viewers of debate programs more conscious of and get engaged in their public life and public issues as empowered citizens or democratic viewers.